# 용학 스님, 온라인 만남 오프라인으로 회향

## 〈화엄경〉 '입법계품' 온라인수강자 초청
## 오프라인 모임 개최해 회향 법회 열어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서**
**1992년 불교한문경전 강의 시작**
**구독 22만4천여명, 영상 622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목어)' 오프라인 모임이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북 경주 황룡원에서 개최됐다.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목어)'를 운영하고 있는 용학 스님(수암선원 주지)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강의를 들어온 불자들을 위해 특별한 만남을 마련했다.

스님은 온라인 수강자 100명을 초대해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북 경주 황룡원에서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목어)'의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했다.

용학 스님은 유튜브 채널 '용학스님TV木魚(목어)'를 통해 2년 동안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간 진행했으며, 실시간 강의에는 200여 명이 접속해 강의를 들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국내의 불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접속하는 등 많은 대중이 관심을 보였다. 실시간 강의 이후 올리는 녹화 강의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용학스님TV木魚(목어)'는 불교한문경전 전문 강의 채널로 1992년에 시작해 현재 구독자는 22만 4000여 명이며, 강의 영상은 622개에 달한다.

이날 모임은 용학 스님이 온라인으로 만난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대면해 전하고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를 회향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초청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1박2일 동안 용학 스님의 강의를 직접 대면해 듣고 소감을 나눴을 뿐 아니라 차담 및 자유 일정으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이어갔다. 행사 기간 동안의 숙박료 및 기타 비용을 용학 스님이 기부로 부담했다.

첫 모임은 먼저 '화엄경 입법계품 선재산림 회향법회'로 문을 열었다. 용학 스님을 비롯한 참가대중은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 회향을 기념하며 용학 스님의 강의와 '문수지남도(文殊指南圖)'를 담은 책 〈입법계품 지남도(入法界品指南圖)〉를 불전에 봉정했다.

회향법회는 상강례, 법성게, 책 〈입법계품 지남도〉 출판 봉정식, 용학 스님 및 정기란 작가 인사말,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책 〈입법계품 지남도〉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구법행을 떠난 내용과 색을 입힌 '문수지남도'를 함께 실어 편찬했다. '문수지남도'는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묘사한 그림으로, 북송 말기에 유백 스님이 지은 〈문수지남도찬〉 속의 그림이다. 〈문수지남도찬〉은 그림 '문수지남도'에 찬(讚)을 더해 편찬한 책이다.

유백 스님은 송나라 3대 총림 중 하나인 법운사의 법수 스님 법을 이었고 황궁을 출입하며 선법(禪法)을 선양했다. 열반 후 황제가 호를 내려 불국선사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문수지남도'는 무비 스님의 염화실 강의를 안내하는 〈염화지〉 표지로도 활용됐던 것으로, 목판을 먹으로 찍어내 무채색이었지만 붓다아티스트로 알려진 정기란 작가가 색을 입혀 새롭게 제작됐다.

용학 스님은 "이번 책 〈입법계품 지남도〉에 담긴 그림 '문수지남도'는 1000여 년 만에 새롭게 색을 입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염화지〉 출판을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가 담당하는데 온라인 강의 때 '입법계품'을 설명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됐다. 이번 출판에도 함께 해 이렇게 좋은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동참하며 도움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은사이신 무비 스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 부산 광명사
##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3월 15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광명사에서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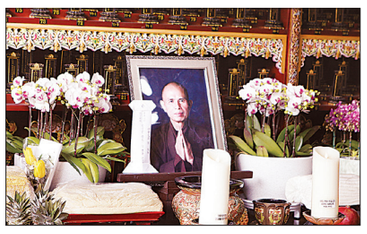
광명사 주지 법경 스님과 신도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20장과 그동안 십시일반 모은 생명나눔저금통을 보시했다.

광명사는 2017년 6월부터 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시락 배달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이번 회를 시작으로 광명사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생명존중과 생명나눔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 관음사, 틱낫한 스님 49재 회향

### 3월11일 수광보전, 저서 〈엄마〉 봉정도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가 3월 11일 경내 수광보전에서 틱낫한 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는 49재 막재를 회향했다.

틱낫한 스님 49재에는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스님들과 관음사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명종 5타로 시작해 △개식 및 삼귀의 △헌향 및 헌공 △헌다 △틱낫한 스님 저서 〈엄마〉 봉정식 △대중 삼배 △입정 △영상법문 △반야심경 △추모사 △불교중창단 '연울림' 추모 음성공양 △헌화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책 〈엄마〉는 틱낫한 스님을 추모하며 제작한 스님의 저서 〈엄마〉 법공양판이다. 책 〈엄마〉를 읽고 감동을 받았던 회주 지현 스님이 절판된 것이 안타까워 플럼빌리지와 번역자 이도흠 교수의 양해를 얻은 뒤 1000권을 발행했다. 법공양을 위해 관음사 이신원 불자를 비롯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했으며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가 편집을 담당했다.

지현 스님은 책에 남긴 조사(弔辭)를 통해 "저희들의 삶과 수행의 길에 이해와 사랑 그리고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신 스승님의 열반 소식은 밝은 한낮에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 듯한 아득함이다"며 "스승님은 눈 없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시고 손발 없는 이에게 손발이 되어서 이해와 사랑을 전하신 선지식이었다. 허공은 다함이 있을지라도 스승님의 은혜는 다할 수 없기에 마음속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꽃피워서 스승님의 서원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틱낫한 존자의 저서 〈엄마〉는 엄마의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하면서 읽었던 책이다"고 소개했다.

관음사는 틱낫한 스님의 원적 후 경내 수광보전에 분향소를 마련해 1월 28일부터 49재를 봉행해왔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2003년 틱낫한 스님 방한 이후부터 20여 년 동안 플럼빌리지와 인연을 이어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제4회 부산불교대상 후보 공모

### 공모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제4회 부산불교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부산불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불자를 발굴해 불교계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부산불교대상 공모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다. 추천대상자는 부처님 교리 실천, 불교 발전,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산의 불자 또는 불교 관련 단체로서 부산지역 사찰 대표, 부산지역 불교 관련 기관 및 단체장 2인 또는 2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후보자 추천서 1부, 공적조서(공적개요, 세부공적내용) 1부, 공적 증빙서류이며, 양식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홈페이지 http://www.bbf.or.kr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접수는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부산시부산진구 부전로 71, 9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2022년 4월 20일, 언론사 지면 및 개별 통보하며 시상은 4월 30일 오후 5시 부산시민공원 중앙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는 2566 부산연등축제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대상(1명) 수상자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 최우수상(1명)은 상금 500만 원과 상패, 우수상(3명)은 상금 각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051)898-267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천태종 부산 광명사, 이재동 신도회장 취임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3월 13일 경내 지관전에서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재동 신임 신도회장은 '울타리 역할'을 강조하며 소임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동 신도회장은 "광명사는 불교의 참된 보살행 실천으로 부산의 으뜸가는 사찰이다.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저는 주지 춘광 스님의 뜻을 받들고 신도님들을 근거리에서 외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불자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데 불편 없는 도량이 되도록 돕고, 나아가 광명사 신도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동 신도회장은 주식회사 태금 대표이사이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겸임교수와 총동문회 회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범어사 신도부회장과 여여정사 신도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불자기업인으로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대학 발전기금 등 지속적인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울산 여여선원
## 개원 11주년 기념법회



울산 여여선원(주지 효암)은 3월 12일 경내 대법당에서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울산 여여선원은 울산 공업탑 로터리에 위치해 도심포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날 법회에는 주지 효암 스님과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기념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입정, 법문,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효암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기념법회를 모두 취소했었다. 이번 해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촐하게 진행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십시일반 나눔으로 기념법회를 회향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 여여선원은 이날 백미 10kg 108포를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구호품으로 전달했으며, 백미는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후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